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음 1월 15일) 제22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봄의 전령사’ 매화 꽃망울 ‘활짝’



완연한 겨울 날씨가 지속된 18일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의 한 카페에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자 시민들이 매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한 낙엽 소교목으로 3월 중순에 개화하며 깨끗한 마음, 결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도내 불법폐기물 문제 강력 대처

도지사-시장군수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위해 중앙부처 등과 협력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도

송하진 도지사가 불법폐기물 등 최근 발생한 환경문제를 도민의 안전 위협행위로 규정하고, 시군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18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14개 시장 군수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불법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불법폐기물 등이 타 시도에서 빈번되는 등 환경문제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

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군수에게는 환경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의 지휘 아래 강

력한 조치와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방치 폐기물 우려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군산시 등에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하여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 조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특히, 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는 물론 시군별 자체 저감조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산먼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방지 등을 위해 현행보다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커피숍 등 일반소비자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도민 의식개선 및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 등 관리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환경정책 및 대응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도도 한층 강화된 환경정책을 펼쳐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해결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5·18 망언, 헌법정신 부정'

“아동인권 고민해야 할 때”

김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유·초·중·고생 학습이 즐거움 아닌 노동 되어가 건강한 학습권도 생각해야” UN 제출 아동보고서 소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인권과 건강한 학습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유·초·중·고생들 공부가 즐거움이 아니라 지독한 노동이 되고 있다. 이는 학습이라는 명목아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들이 유보돼 버렸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 UN에 제출한 ‘한국 아동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 놀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과도한 학구열,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는 9월 본회의에 참석할 우리 정부에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5년 뒤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UN이 우리 교육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 위상이 국제적으로 복잡할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제 우리 교육계가 아이들의 인권 및 건강한 학습권과 성장 발달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저소득자 특례보증 ‘착한론’ 운영

전북도, 8개기관과 ‘착한론 지원사업’ 추진협약 체결 400억원 규모 대출금리 4%대 중 3년간 2% 이차보전

전북도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저금리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등 포용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18일 전북도는 NH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상인연합회 등 8개 기관과 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착한론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착한론 지원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글자 그대로 ‘착한 대출’이다.
전북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권 대

출마저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론’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운영한다.
보증규모는 400억원으로, 300여개 업체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4%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2%대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이다.
상환방식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닌 거치상환방식으로도 가능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덜어 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례보증 수수료율 법정 최저율인 0.5%로 적용해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